

파견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캐나다
	대학명	빅토리아 대학교
파견기간	2024 년 9 월 ~ 2024 년 12월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정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기제 ※ 파견대학 수학 전공:	

1. 출국 전 준비 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1) 유학생 보험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면 자체적으로 수학하는 기간에는 보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공권 일정에 맞춰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자유롭게 여행을 가거나 조금 더 머물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하나 더 들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한번 병원을 가게 된다면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도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험을 개인적으로 들어놔야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도 신뢰가 가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드는 것을 조언하고 싶습니다.

2) 비자

저는 한 학기, 즉 4개월 정도만 머물렀기 때문에 ETA라는 여행 비자를 신청하여 갔습니다. ETA는 만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인터넷에서 신청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국 전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비자가 승인됐다는 메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주 메일을 확인하여 다른 메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항공권

아무래도 캐나다로 가는 비행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가기 2달 전에는 미리 인터넷으로 비행기표 최저가를 찾아서 예매를 해놓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밴쿠버에서 경유하는 비행기가 많아서 중간 경유 시간도 잘 계산을 해서 표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경유하는 곳에서는 짐을 찾을 필요가 없고 입국 절차만 밟으면 돼서 넉넉히 2~3시간 정도의 경유 시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면 빅토리아에 가기도 전에 지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대를 잘 보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저는 시

차 적응 기간에 필요할 거 같아서 학기가 시작하는 일주일 전에 미리 빅토리아에 가서 생활했습니다. 시차가 16~17시간이기 때문에 2~3일 전이라도 미리 가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빅토리아는 사실 겨울에 눈보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도가 한국과 비슷해서 따뜻한 옷을 챙기더라도 너무 많이 챙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숙사나 홈스테이 집에는 한국과 다르게 온돌이 없어요. 저는 2학기에 교환학생 갔었는데 홈스테이 방이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챙겨 간 것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캐리어는 사실 1인당 1개만 들고 갈 수 있지만 10만 원 내고 캐리어 두 개 짝짝 채워서 들고 가세요. 그리고 캐나다 마지막 날 즈음에 기념품을 사기 때문에, 옷을 들고 가더라도 버릴 옷, 신발을 들고 가더라도 안 신는 신발을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캐나다에서 옷 쇼핑을 할 수 있지만 물가 때문에 옷을 사는 것도 부담이 될 거 같고,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옷이 정말 없어요. 빅토리아 시내에 있는 ‘허드슨 베이’라는 건물 안 옷 가게만 자주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분 수건도 2개 정도 챙겨 가면 좋고, 돌돌이도 추천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병원비가 비싸서 비상약도 꼼꼼히 챙겨 가시고, 여성분들은 생리대나 생리통약 들고 가시라는 것도 조언하고 싶어요. 대부분 학기 중에 홈스테이 생활을 하니까 그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 팩, 한국 부채 같은 거 들고 갔어요. 마지막으로 어댑터도 넉넉히 챙겨 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캐나다는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배우는 언어가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크게 영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보다 물가는 정말 비싼데 2~3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편하고, 팁 문화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10~15%정도, 테이크 아웃을 한다면 자기 선택대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팁 문화가 강요는 아니지만 외식을 하실 때에는 10%라도 내시는 걸 조언드립니다. 캐나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친절해요. 버스정류장, 카페, 박물관에서 스몰 토크를 시작하면 거의 다 받아주십니다. 영어를 못해도 다들 친절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면서 스스로 영어가 자연스럽게 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시내, 즉 다운타운을 구경하면 마약하는 사람, 노숙자가 많이 보일 겁니다. 말 걸어도 무시하고 최대한 눈도 피하면서 관광을 하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현금도 사용 가능하지만, 미리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현지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저는 사실 중학교 때 빅토리아에 살다 온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너무 좋았고, 그 시절 영어에 자신감이 없었던 스스로에게 후회가 되어서 다시 도전하고자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안전하고,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지낸다는 인식이 있었고, 자연에서 힐링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싶어서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저는 학교에서 배정해 준 홈스테이가 있었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족이 첫날 공항에 데리러 와주셨습니다. 홈스테이하는 곳에서 학교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사실 캐나다 버스는 제시간에 안 오는 경우가 많고, 버스가 만석이면 사람을 안 태우고 가기 때문에 항상 구글에서 제공하는 시간보다 좀 더 여유롭게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버스 탈 때에는 Transit이라는 초록색 앱을 미리 다운받아서 시간을 확인하면 더 정확한 버스 시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영어를 중점으로 수업을 배우는 ELPI 프로그램을 수강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수강신청은 따로 필요가 없지만,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떤 과목을 듣는지 빅토리아 대학교에 메일을 보내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에서는 영어와 관련된 Grammar, Listening, Reading, Speaking, 그리고 Writing 모든 영역을 다루는 수업을 듣습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저는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배정해 준 홈스테이에서 한 학기 동안 머물렀습니다. 주변에 홈스테이를 바꾸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혹시 홈스테이 생활을 하다가 정말 상황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학교를 통해 새로운 홈스테이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만 적극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 생활이 처음에는 적응이 어렵겠지만, 이런 경험이 취업시장에 뛰어들 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 있는 동안에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화하고, 무슨 일이 있거나 필요한 게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5. 교내·외 활동

빅토리아 대학교에서는 첫날에 교내외 활동과 교내 동아리 정보를 알려줍니다. 고래 보러 가기, 카약 타기, 유명한 정원 관광 가기, 박물관 탐방 가기 등 학교에 추가 비용을 낸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마다 동아리 홍보 부스가 열리기 때문에, 시간을 미리 알아보고 동아리 홍보부스를 구경 가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빅토리아는 한국보다 큰 섬이고,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프로그램에서 친해진 일본인 친구들과 같이 다운타운 구경, 근교 공원이나 정원 구경, 브런치 먹기, 쇼핑하기 등을 했습니다. 홈스테이에서는 저녁만 제공을 해줘서 아침, 점심은 각자 해결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다들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홈스테이 음식이 입에 안 맞거나 한식이 그리우면 친구들과 한식당을 찾아가서 추억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주로 다운타운에 가서 많이 놀지만 노숙자와 마약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에 항상 주의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버스카드 발급과 헬스장 이용은 빅토리아 대학교에 등록금을 내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학기 중에는 사실 과제가 많아서 바쁘긴 하지만 주변에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 오거나, 페리로 가기 쉬운 밴쿠버 여행을 많이 갑니다. 저는 학기 중에는 수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근교 여행을 많이 했고, 학기가 끝나고 밴쿠버에서 머물다가 캘거리 여행을 했습니다. 사실 한 학기 동안 낯선 곳에 있다 보니까 막상 여행을 가면 방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디론가 여행을 갈 때에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고 관광을 하면 좋겠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빅토리아 대학교는 각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존중하고 배움을 이어 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하기 어려웠던 영어 프리토킹에 도전해보고 싶거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를 기르고 싶다면 교환학생 생활을 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네이버블로그(<https://m.blog.naver.com/rladhs233>)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상을 기록하였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빅토리아 대학교 버스정류장 전경>



<빅토리아 대학교 도서관 내부>



<일본인 친구들과 먹은 프레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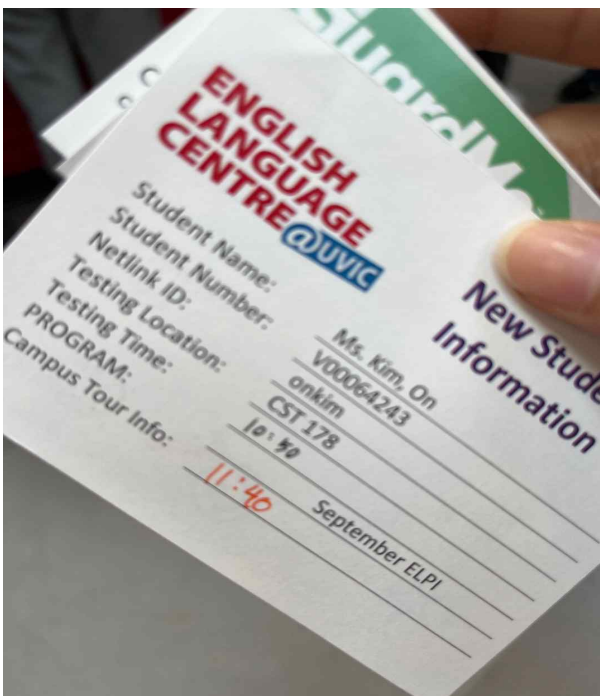
<대학교 헬스장 안에 있는 암벽등반>



〈빅토리아 다운타운 전경〉



〈빅토리아 국회의사당〉



〈학교에서 레벨 테스트 본 날〉



〈학교 전경〉



<홈스테이 방>



<홈스테이 가족과 트리 꾸민 날>



<홈스테이 가족이 하는 연극 구경한 날>



<홈스테이 고양이와 친해진 날>